

# 크레이그 키너 박사, 로마서, 강의 1

## 소개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세션 1, 소개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역사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구약성서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우는 슬픈 결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바울의 가르침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에서는 이것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의 경우, 우리는 그것이 역사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리겐이 로마서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매우 귀중한 주석을 쓰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좀 더 최근의 시대, 확실히 마틴 루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에 의존하는 그의 견해에 혁명을 일으킨 것은 로마서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울더스게이트 예배당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 낭독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로마서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자들,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등 전 세계적으로 로마서는 바울의 가르침을 많이 모아 놓은 장엄한 걸작으로 접근합니다. 자, 그것은 흔히 다루어지는 방식의 조직신학이 되려고 의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그것은 우리가 신학을 체계화할 때 우리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 주요 요점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먼저 장르, 즉 편지와 서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구별이었습니다. 파피루스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네카와 같은 문학 서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네카, 키케로 같은 평범한 편지도 있었고, 플리니우스도 평범한 편지를 썼지만 때로는 세네카가 마르첼라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 같은 편지 에세이나 다른 종류의 작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파피루스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매우 흥분했고 Adolph Deissmann과 같은 학자들은 바울의 편지가 파피루스와 더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엘리트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파피루스를 비교해 보면 일반적인 파피루스 문서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휘는 종종 코이네(koine)입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일상적인 어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파피루스는 평균 약 87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썬요, 빌레몬서의 길이 정도, 조금 더 길거나 요한 3서나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Cicero의 평균은 약 295단어였으며, 이는 최대 2,530단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Seneca의 평균은 약 995단어, 최대 4,134단어입니다. 그러나 Paul의 평균 단어 수는 약 2,495 단어였습니다.

현존하는 그의 가장 긴 편지는 로마서로, 본문의 차이에 따라 7,114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피루스 편지에서 발견한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일반 편지에서 발견되는 것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은, 그 사람도 편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신의 틀, 시작, 결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를 포함한 일부 편지에는 논쟁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파피루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문서나 인사장, 파티 초대장 등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논증은 주장을 펼치는 것보다 연설이나 편지 에세이에서 더 자주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사학 비평가들은 바울의 서신이 엘리트 서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들은 키케로(Cicero)나 플리니우스(Pliny) 또는 다른 이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의 머리 꼭대기에서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신중하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그의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헌신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은 사용할 수 있는 속기가 없었습니다.

약간의 약어가 있었지만 아마도 그다지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막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2절에 따르면 로마서를 기록한 서기관인 더디오에게 받아쓰기를 하면 그는 자신의 문안을 보냅니다. 아마도 신자 자신일 것입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받아쓰기를 통해 받아 적는다면 바울이 로마서를 받아쓰는 데 11시간 이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읽을 수는 있지만요. 아마도 그는 문서의 길이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고려할 때 최소한 두 개의 초안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만약 테르티우스가 이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파피루스와 노동력은 약 20.68데나리온에 달했을 것입니다.

Randy Richards는 우리에게 이 추정치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미국 통화로 환산하면 약 2,275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의 머리 꼭대기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안녕, 밥, 잘 지내? 나는 잘 지내고 있다. 곧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 편지를 통해 교회, 즉 로마에 있는 성도들, 즉 로마에 있는 구별된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의사소통을 담고 싶었기 때문에 그가 많이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어떻게 읽나요? 음, 수사적 비평과 서간적 비평 사이에서, 그것은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편지와 서신 사이의 기술적 구별을 제쳐두고 있는데, 실제로 편지 수필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자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대 수사학 핸드북은 다양한 하위 장르의 문자를 제공합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책망서와 빌레몬서 같은 추천서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글자와 글자의 다른 부분을 쓰는 방법에 대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바울 시대보다 훨씬 늦게 수사학 안내서에 등장합니다.

사실, 수사학 핸드북은 실제로 바울 시대보다 훨씬 늦게까지 편지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편지의 일부.

글쎄요, 당연히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뭔가 잘 쓰여졌다면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서문이 쓰여진 방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문자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저자, 이 경우 바울은 사도이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자신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청중에게. 그래서 오늘은 영어로 dear so-andso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에서 우리는 종종 인사를 합니다. 아니면 모든 기술 언어를 건너뛰고 바로 시작하세요. 하지만 당시에는 작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말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도들에게나 또는 로마에 있는 구별된 자들에게 하라. 그리고 인사드립니다.

그리스어의 전형적인 인사말은 인사말을 뜻하는 카이레인(kairein)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바울의 편지와 신약성경의 다른 편지들에 적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에는 여전히 카이레인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1이나 1:2에는 여전히 카이레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지들에는 바울의 편지들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다양한 초기 기독교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한 최초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카이레인(인사) 대신 카리스(은혜)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들리지만 그는 전형적인 그리스 인사말을 우아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는 유대인의 표준 인사말인 히브리어로 샬롬을 채택했습니다. 샬롬 알레이헴,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샬롬 레카, 평화를 누리세요. 그러나 로마서와 바울의 다른 글에서는 그리스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평화를 뜻하는 kairēnē입니다.

그리스와 유대의 인사말을 결합하여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바울이 그런 일을 한 최초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비와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유대인 출처에서 이것을 결합한 다른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특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용어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입니다.

당신에게 은혜가 있거나 당신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부 학자들이 소원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암묵적으로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야곱에게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에서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이 일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서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것도 계속됩니다. 너에게 평화가 함께하길.

평화는 정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대 편지에는 개회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종종 사람의 건강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요한삼서의 말씀처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고대 편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도 그들을 위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서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고, 종종 이 주제를 요약하고, 종종 로마서 8절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위한 별도의 기도도 드린다는 것입니다. 1.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은혜와 평안이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방인들이 말하듯이, 어떤 이방인들이 말하듯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오는 은혜도 아니고 주님 세라피스의 은혜도 아닙니다. 신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바울의 서신 바로 앞부분에서 그는 자신이 회중들과 공유하고 있는 지식, 즉 예수가 신성하다는 지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글썬요, 여러분은 서신에 대한 서문을 보셨고,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1장에 대한 바울의 서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편지의 본문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문자에 대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여러 종류의 편지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논쟁이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수사적 비평입니다. 어떤 종류의 연설과 그에 따른 어떤 종류의 논쟁, 이야기나 해설, 상황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글을 쓰기까지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때로는 논문 진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Thesis는 그리스 이름, *propositio*, 라틴어로 명제, 사건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종종 편지로나 아니라 연설로 논쟁을 벌이고 때로는 증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연설에서는 라틴어로 논증과 증거, 즉 시험관(*Probatio*)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의 경우에는 성구를 인용했습니다. 글쎄,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얼마나 많은 수사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것을 연설처럼 배열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 또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확실히 수사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석학은 문자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편지는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편지 에세이는 좀 더 일반적이고 일반적인 서신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편지는 특정 청중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글쎄, 당신이 자신이 아닌 다른 청중에게 전달된 2차 의사소통을 할 때, 그것은 전달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청중에 대해 뭔가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성 이론은 우리가 그 자체로는 불완전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안합니다. 단어는 사회적 맥락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커피 주세요라고 말하면, 커피 주세요는 커피 좀 주시겠어요?의 줄임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에게 커피를 주세요라고 말하면 제가 전부 철자해서 말하는데, 그들이 커피에 익숙하다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01년부터 미국에서 9-11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모두가 9-11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누군가가 전력망이 끊어지고 종이 사본을 제외한 모든 것이 사라진 후 언젠가 글을 쓰고 있다면, 그들은 미국 상황에서 9-11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한두 세기 후에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9-11에 대한 배경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개별 회중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알면 그 편지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경우에는 기독교인이 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비기독교인 비교회 배경에서 개종한 상태였지만 하루에 성경을 40장 정도 읽으면서 그 배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에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1 장 7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여기 이 구절과 여기 이 구절을 외우고 있지만 그 사이에 있는 몇몇 구절은 무시하고 있어요'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한다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그가 말하고 있는 문제들 중 일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그가 왜 이 문제를 언급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그가 이런 말을 하여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일반적인 공유문화의 일부일 뿐인데 나는 그것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고대문화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제가 IVP 성경배경주석을 쓴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국 성경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혼자서 성경을 읽고 설교할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했고, 그 연구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적용한 것과 동일한 원칙 중 일부를 적용합니다. 그는 동일한 원칙 중 일부를 다른 곳에서도 적용했지만 로마의 특별한 상황은 이 편지에서 이러한 일반 원칙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도 바울의 원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고대의 편지나 다른 것들을 볼 때 이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 말은 이것은 고대 철학자와 다른 현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 문제와 문화적 문제를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문화를 초월한 도덕적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악덕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반적으로 꽤 많이 정죄되는 것들이고 그는 정기적으로 정죄합니다. 그의 편지에는 음란과 비방과 험담과 탐욕 등이 가득합니다. 문화 간 도덕적 규범.

제가 어떤 것들이 특정한 문화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말할 때, 성경에 있는 것들이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단지 성경의 모든 내용이 모든 상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싶다면 비슷한 상황에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를 살펴보고 초문화적 규범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가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를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핵무기에 관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오늘 매우 중요한 윤리적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디다케(Didache)는 낙태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낙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소 놀라운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에서 원칙을 찾아야 합니다.

글쎄, 당신은 초문화적인 도덕적 규범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이 다른 구절에서 다른 실천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초문화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대해, 성경 신학에 대해, 다른 실천을 허용하는 다른 구절이 있다면. 디모데전서 5.14, 여자는 집에 가두지 말라.

그리고 그것은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서 디모데전서가 언급되는 에베소의 부인들에게 적합한 역할로 간주되었습니다. 집 밖에서 일하는 여성들. 잠언 31:16, 창세기 29:9, 야가서 1:6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화입니다. 나는 또한 이것을 디모데전서 2:12과 사사기 4:4 등을 비교하는 것과 같은 다른 성별 문제에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 나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세부 사항에 문화적 배경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주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며, 적어도 여러분에게 이를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작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선택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지 않았던 시대에 그들이 아무도 제기하지 않은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노예 제도 지지자들의 편을 들었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저는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노예 폐지론자들이 노예 제도를 지지하기 위해 바울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보다 바울의 정신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점을 에베소서에서 매우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존재하는 상황을 언급하지만,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너희 주인이 그들에게 같은 일을 한다고 말할 때 존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에게도 같은 주인이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글썄요, 제 생각에는 폴이 그의 동시대 사람들보다 더 급진적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른 곳에서 출판물에서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다른 것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에베소서의 저자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비록 저는 그것이 바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내용이 있어 문화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반면, 성경은 때때로 문화의 일부 요소에 대해 만장일치의 목소리로 말합니다. 바울 시대의 그리스인들은 혼전 성관계와 동성애 성교에 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급하는 모든 구절에서 이성애 결혼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정죄합니다. 이는 단지 특정한 문화적 상황이 아니라 성경신학 전체를 반영하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도 일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 일부를 더 자세히 탐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고대에는 수사학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지배적인 학문이었습니다.

고등교육의 두 가지 형태, 즉 고등교육의 두 가지 형태는 철학과 수사학이었다. 수사학은 철학보다 시장과 시민 집회의 연설자들에 의해 더 자주 평가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사학에 참여했습니다.

연사는 시장, 특히 시민 집회와 공개 대회에서 수사적 원칙을 사용하여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적 장치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말을 듣는 데 익숙해지기 위해 또는 사람들이 주장의 특정 구조를 따르는 것을 듣는 데 익숙해지기 위해 실제로 수사학 훈련을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글을 읽고 쓰는 의사소통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장르마다 다른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마가복음이나 그 비슷한 것을 마치 연설인 것처럼 정리하려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고대 전기는 그런 식으로 배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논증은 수사학의 특정 원칙을 따랐습니다. 2세기에 두 번째 소피스트의 전성기에는 신약성서의 일부와 구약성서의 헬라어 번역본이 영감받은 것으로 옹호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당황하게 만들 정도로 이러한 현상이 너무나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후기 기준에 따라 사람들은 이러한 초기 문서를 되돌아보며 '아니요, 수사학을 사용하는 고대 고전 아테네 방식인 정확한 Attic, Athenian에서는 이런 식이어야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약성서에 다락방이 몇 개 있지만, 이 문서가 기록된 시대와 장소에서는 그것이 의사소통의 지배적인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부들은 이 문제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부들은 수사학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수사학 비평을 자주 사용했다. 그래서 그들은 글자를 이해하는 데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루터의 후계자인 멜란히톤은 인문주의자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수사비평도 실천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의 집단에서는 연설가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았지만 바울은 여전히 몇 가지 수사적 장치를 사용합니다. 이제 문제는 바울이 연설문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수사적 비평가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수사학 수첩에는 글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후 수사학 핸드북에서는 이를 연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사학 핸드북에 있는 연설 개요는 대부분의 연설에 맞지도 않습니다. 연설가가 훈련을 받고 그 방법을 배운 후에는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설문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학 수첩만 읽는 것이 아니라 고대 연설문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웅변가의 편지와 이것은 아마도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관찰일 것입니다. 2세기의 Cicero, Pliny 또는 Phranto의 편지와 같은 웅변가의 편지입니다. Cicero는 기독교 이전입니다. 플리니우스는 2세기 초입니다.

프란토는 2세기 중반이다. 그들의 편지는 연설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는 키케로와 플리니우스의 편지보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더 많은 수사적 장치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설을 하지 않았고 연설문을 쓰는 방식으로 편지를 쓰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고대의 수사법은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글썄, 우리는 바울의 편지, 적어도 바울의 편지 대부분이 정상적인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 안에 몇 가지 수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존된 바울의 편지 대부분에는 편지 에세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논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편지들이 연설처럼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대부분은 수사적 장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바울은 같은 문구나 같은 소리로 연속적인 절을 끝내기도 합니다. 그는 동일한 문구로 연속적인 절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표준적인 수사적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단 찾아보기 시작하면 바울의 편지에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수사학자의 관점에서 그것을 탐구하지 않은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이러한 비유적 표현과 말하는 방식을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구두 의사소통으로 발견합니다. 우리가 고대 수사법을 활용하여 한 일은 단지 바울만이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연설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이러한 수사적 장치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바울은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편지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는 논쟁에도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이 태어난 다소의 교육은 고대에 가장 위대한 철학의 중심지로 여겨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알렉산드리아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이 시기에 아테네를 능가했습니다. 스토아 학파가 많았습니다. 내가 말할 때 스토아주의는 이 시대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철학적 지향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지배적이 된 에피쿠로스주의, 플라톤주의보다 더 대중적인 철학적 지향입니다. 우리는 그의 편지에서 바울과 스토아주의 사이의 접촉점을 많이 발견하며, 바울과 때로는 플라톤주의 사이에도 접촉점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나는 스토아주의를 더 자주 생각합니다. 저는 바울이 스토아학파로서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일 신학대학원의 교수였던 Abraham Malherbe가 자신의 책 중 하나에서 바울과 대중 철학자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대중 철학의 언어를 알고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알고 있었고, 당시의 언어로 사물을 표현하는 방법과 청중을 위해 상황에 맞게 설명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볼 것이므로 그것을 고려하십시오. 수사학은 또한 Tarsus의 고급 학문이었습니다.

Tarsians는 종종 해외에서 고급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아마도 토라에서 고급 훈련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22장 3절은 바울이 실제로 고급 수준 이전, 고등 수준 이전에 해외로 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다른 것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사도행전에 대해 네 권으로 된 주석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아마도 그의 가족이 그가 아직 꽤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는 두 세계의 장점을 모두 얻었을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에서 그가 가말리엘과 함께 공부했다면 아마도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토라뿐만 아니라 헬라어와 관련된 교육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고전에 대해 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주 드물게 인용하고, 그가 인용하는 곳은 단지 인용 매뉴얼 등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종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칠십인역을 도처에서 인용하고 있으며, 의심할 바 없이 그가 한 일, 즉 고급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설교자가 성경에 대한 고급 훈련을 받았지만 적어도 설교학, 설교학에서 한 두 과목.

글쎄요, Paul은 아마도 낮은 수준에서 말하는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훈련이 무엇이든 그는 종종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확실히 수년에 걸쳐 발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바울은 교육 측면에서 예루살렘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으로서 두 세계의 가장 좋은 점을 누렸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가말리엘의 발 밑에서 가말리엘과 함께 공부하면서 자신이 동시대 사람들보다 더 발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적어도 어떤 수사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몇 가지 철학에 대해 배웁니다.

그는 그리스 지적 담론에 능숙합니다. 유대에서는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녀들을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에베소, 타르수스로 보냈지만 토라, 특히 헬라어에서는 예루살렘이 갈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가르칠 수도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유창했다. 그의 그리스어는 매우 유창하다.

그는 그의 언어 때문에 그를 도와줄 스타일 편집자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의 코이네가 셈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글썄, 코이네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논쟁에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세푸스는 아마도 그의 그리스어를 돕기 위해 문체 편집자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분명히 그리스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리스어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에서 그를 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그리스어에 능통했습니다. 가말리엘의 집안은 그리스어에 능통했던 것 같으며, 디아스포라 이민자들도 그리스어를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교수님들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바울의 편지는 그가 실제로 교육을 꽤 잘 받았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내 말은, 그는 엘리트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키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네카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내용적으로는 매우 높은 수준의 논증을 갖고 있지만 그는 수사학적으로는 플리니우스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일반 비즈니스 문서인 파피루스에 비유한다면, 바울은 가장 낮은 수준의 교육인 문법 교육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확실히 그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편지 내용은 매우 존경받는 그리스 연설가들의 내용과 다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에게는 고전적인 인용문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과시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이전 작가들의 농담을 포함하여 부적절한 순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대신, 차분한 인용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수사학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수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설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를 설교학 과정을 이수하고 성경을 전공한 신학생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편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추측할까요? 나는 성경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난 세기의 학문에서 바울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약 100년 전에는 바울이 헬레니즘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 대해 잘 모르고 예루살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정보도 많고, 이것저것 많은 것을 갖고 있던 몬테피오레가 그렇게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1960년대와 그 이전의 일부 유대인 학자들을 시작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여주었듯이 유대와 갈릴리의 헬레니즘화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aul Lieberman은 그 기간 동안 다른 학자인 Tcherikover와 다른 학자들, 특히 1970년대 Martin Hengel에 의해 확립된 헬레니즘화가 1세기까지 매우 멀리 나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와 낮은 갈릴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곳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 밖의 디아스포라와 같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는 이미 헬레니즘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전히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변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 자신의 글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글썄요, 우리가 고대



문헌의 다른 곳에서 바리새인에 관해 읽을 때,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에 관해 읽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 바울은 자신이 이런 훈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자신이 높은 유대인 교육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갈라디아서 1장 22절부터 23절에서 유대 교회를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단지 디아스포라 출신이 아니라 단지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유대에 있을 다른 이유도 없이 유대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유대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바울을 팔레스타인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듯이 WD 데이비스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울의 랍비 바리새인 초상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WD 데이비스는 바울이 메시아적 바리새인, 즉 메시아가 오셨다고 믿는 바리새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교수이자 박사 과정의 멘토였던 EP 샌더스(EP Sanders)는 자신이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바울을 그 맥락에 두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에드 샌더스의 전문 지식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 또는 예수와 팔레스타인 유대교는 그것을 신약성서의 전체 배경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한 말은, 원래 그가 시작했을 때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팔레스타인 유대교와 헬레니즘 유대교를 비교하는 것이었지만 인생은 너무 길어서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Abraham L. Herbie가 서신서 등에 대해 행한 일을 정말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상호 배타적인 옵션이 아닙니다. 바울은 헬레니즘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팔레스타인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Yale School에서 널리 퍼진 것 중 하나는 Duke에서 국제적인 Greco-Roman 배경인 EP

Sanders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뉴질랜드 출신으로 호주에서 고전학을 가르치는 에드윈 저지(Edwin Judge)가 앞서 주장한 것입니다.

나는 몇 년 전 호주에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그 중 일부를 얻은 Abraham L. Herbie와 Yale의 Wayne Meeks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Ronald Hawke, Ben Witherington 및 기타 철학과 같은 수사학에도 광범위한 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Tuls Amberg Pedersen은 고전주의자이자 스토아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Jeff Wyma와 Stanley Porter는 당시 서신이 쓰여졌던 방식과 같은 서신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학자들과 다른 많은 학자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일부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하는 위험은 내 좋은 친구인 Linda Belleville 등을 포함하여 많은 항목을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Paul은 이러한 모든 배경을 혼합합니다. 내 말은, 이 모든 것이 그의 배경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문화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접근하는 문화를 고려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전혀 타협하지 않으면서 문화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토라에 나오는 바울은 부르심 이전에 토라와 율법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열심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반역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회심하기 전에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이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지성에 대해 너무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내 지성이 나를 정확히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한없이 더 똑똑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 성경은 숨은 일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일을 숨기시지만 왕은 그것을 찾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왕은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와 바울의 다른 편지들,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2장 등에서 마음에 관해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마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마음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는 마음입니다. 잠언에서 말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토라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은 때로 세부사항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프레임워크가 잘못되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으며 이는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자가 되면, 어쨌든, 제가 무신론자였을 때보다 상황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부름을 받기 전부터 토라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그러한 열심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편지에서 문제는 토라 자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육체였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유혹, 교만, 탐욕 등에 취약하고 취약합니다. 기록된 토라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믿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토라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유대인들이 가르친 것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글썄요, 그것은 당신이 말하는 유대교의 어느 부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때때로 머리 덮개에 관해 고린도전서 11장과 같은 임시적인 논증을 사용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다양한 주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마지막 주장은, 음, 만약 여러분이 나의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동부 지중해 세계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방식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정자, 즉 씨앗이 단수라는 사실을 근거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집합적인 단수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둘 이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헬라어 본문인 29절에서 실제로 바울이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Paul은 때때로 논쟁적인 맥락에서 임시 논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에 대해 그런 논증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상황에서 논쟁하는 방식의 모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종류의 논증이 사용된 환경에서 바울이 주장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신학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의 신학은 주석적으로 아주 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을 설득할 때, 그는 그들을 설득할 만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의 첫 번째 주장 중 하나는 말장난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그는 케팔래의 비유적 의미와 문자적 의미인 머리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루지 않을 비유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요점은 그가 비유적인 의미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모두 사용하여 말장난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종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는 캐리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2:17-24, 간음을 반대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네가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원을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유대인은 간음을 범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은 간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Paul은 캐리커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논쟁에서 때때로 *reductio ad absurdum*이라고 불리는 일을 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입장을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모든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이라는 사실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가 로마서 3장 10-20절에서 인용한 시편 본문은 유대인 개개인을 정죄하기에는 너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그분의 궁극적인 요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일부 본문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그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주장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거의 모두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예외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논쟁적 수사법은 누군가의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쟁적이고 매우 강력한 논쟁적 수사였습니다. 그것은 토론 환경에서 표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이 자녀들을 위해 돌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한 자녀, 아브라함을 위한 영적인 자녀를 일으키시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등장할 당시 이미 논의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로마 세계의 청중들이 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사건을 논증합니다.

바울 자신의 유산은 희화화되고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원망하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으라고 가르쳤다고 하는데 바울의 가르침은 확실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름으로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4절까지에서 많은 학자들은 야고보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된 설명을 반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논쟁적인 맥락에서 우리는 사물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견고한 가르침, 구약성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견고한 가르침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가 프레임을 구성하는 방식은 때때로 그의 시대에 구성되었던 방식과 같습니다. EP 샌더스는 유대교에 대한 오래된 반유대주의적 접근 방식이 유대교를 초기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특정 국가의 특정 교단, 즉 독일 루터교와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모든 독일 루터교인들이 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모든 독일 학자들에게 공평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글썬요, 그것은 모든 독일 학자들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루터교인들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EP 샌더스는 홀로코스트 이후 한 세대에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곳의 많은 교회는 공식 교회, 특히 제국 교회가 된 후에는 예수의 유대인성을 폄하하고 있었습니다. 게르하르트 키텔(Gerhard Kittel)이 신약성경 신학사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가 처음 두세 권만 편집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생을 나치 전범으로 가택연금 상태에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일부 나치 신학자들은 예수의 유대인성을 폄하하고 있었습니다. Kittel은 랍비 전문가였지만 나치당에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대성을 무시하고 유대교를 기독교가 얼마나 더 나은지에 대한 호일로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종종 유대교를 잘못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Strack과 Billerbeck에서도 그 중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랍비 자료나 랍비 전문가의 잘못이 아니라 신약성서에 적용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공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매우 율법주의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심지어 루터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자신을 중세 교회에 대한 바울의 반응에서 유대교에 대한 반응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대 유대인 자료로 돌아갈 때 실제로 발견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멘토인 EP 샌더스가 처음에 인정한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지적했지만, 그것을 지적한 사람들조차도 EP 샌더스가 그 시대에 널리 존재했던 상황, 즉 매우 반유대주의적이고 매우 반유대적인 상황을 비판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샌더스의 작업에서 보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한정하는 것은 그것이 전반적이지는 않지만 초기 유대교에는 인정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언약의 일부로 태어났고, 언약의 일부로 할례를 받았으며,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닌 한 언약 백성의 일부로 남아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방인이고 유대교로 개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고민이 됩니다. 이제 개종자로서 언약에 대한 충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은혜를 강조한다고 해서 실제로는 결코 율법주의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말은, 오늘날 은혜를 말하면서도 율법주의를 실천하는 많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전적으로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때로는 율법주의적인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맞서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르면 사도행전 11장에서 누가 바리새인들을

반향하는지 추측해 보세요. 너희가 가서 죄인과 함께 먹었다는 것이 아니요, 가서 이방인과 함께 먹었느니라.

같은 종류의 생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reductio ad absurdum*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과 상황을 최대한으로 다룰 것이라는 사실과 실제로는 일부 율법주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 사이에 있습니다. 그들은 신문에 있습니다. 내 말은,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많은 일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그들의 윤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와 동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예수와 동의하는 것과 다음과 같이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비의 정신과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토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학적 태도를 구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과는 달리, 유대교에 은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면 바울을 급진적으로 재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유대인이고 우리가 이방인이라면 같은 유혹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섬기는 종교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이 너무 짧아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합니다. 로마서의 설정.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고 실제로는 디아코노스인 뵤뵤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겐그레아 교회의 디아코노스는 고린도의 두 항구 도시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 지협. 바울은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뵤뵤가 여행하는 동안 편히 보냅니다(롬 16:1). 이것은 그가 아카이아에 겨울을 지내는 동안이었을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한 로마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클라우디우스 치하 49년경에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었고, 클라우디우스가 54년에 죽었을 때, 아마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 1, 2년 정도 전에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는 로마와 주요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많은 교역이 오갔습니다. 고린도는 로마의 주요 식민지였으며 이탈리아와 소아시아를 잇는 주요 해양 통로였습니다.

아카이아의 남쪽 해안은 매우 험준하고 그곳으로 항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펠로폰네소스가 있는 곳으로 항해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지협으로 항해했고, 지협 내부에서 외부, 에게 해로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지협을 통과하는 운하를 건설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알코스트라는 것이 있었고 물건을 끌고 건너편 배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로마의 인구는 물 공급으로 인해 25만 명 정도로 낮게 추산되기도 합니다. 고대 인구 조사 기록은 실제로 인구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지 않거나 인구 조사 기록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 즉 가족, 노예를 고려하면 로마 주민의 수가 아마도 이 지역에 더 가깝다고 암시합니다. 기간은 약 백만으로, 이는 고대 지중해에서 가장 큰 도시였음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마도 두 번째일 수도 있고 아마도 약 50만 명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에는 주택이 많았습니다.

부자는 바닥에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높은 고층에 살았고, 종종 맨 아래층에는 종이층 아파트가 있는 상점이 있었고 맨 아래에는 부유한 주민들이 살았습니다. 바닥은 아래층에만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귀중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지만 때로는 위층이 매우 불안정할 때도 있습니다. 작은 방이 있고 잠잘 공간이 있고 어떤 곳에는 숯불 화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에서 매일 화재가 발생하고 건물이 불타고 건물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고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누군가 그것에 대해 농담을했습니다.

별로 웃긴 건 아닌 것 같은데, Juvenal은 로마에서 건물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농담을 하더군요. 매일 어디선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부유한 집주인의 소유였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아래층에 살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교회들은 그곳에서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글쎄, 그들은 아래층에서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객실과 일부 고층을 연결하는 복도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거주자들은 로마 인구의 최대 5%를 차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티베리우스의 추방을 기준으로 볼 때 이곳의 유대인 인구는 대략 20,000~50,000명, 흔히 40~50,000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로마 인구의 5%에 달합니다.

유대인 공동체의 배경인 로마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타이베리움 횡단 지역에 살았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Trastevere라고 불립니다. 나는 이탈리아어를 할 수 없으므로, 특히 이탈리아 출신이라면 내 발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내 중심에서 테베레 강 건너편에는 유대인 공동체의 대다수가 살았던 곳이 있습니다.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대부분은 가난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Tiber 부두에서 일했을 것입니다.

회당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많으면 회당도 많아야 합니다. 이 시기부터 몇몇 회당의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감람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서 11장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정 회당이 시작된 날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의 회당 공동체와는 달리 로마의 회당 공동체는 전혀 연합되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근위병이나 지역 경찰이 아닌 한 도시에서 누구도 연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들과 거주 외국인들이 많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인들이 도로를 모두 건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국 전역, 즉 디아스포라의 여러 지역에서 로마로 몰려들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도 있었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그곳의 교회는 2세기까지 주로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1세기 후반의 유대 기독교 문서인 First Clement는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여러 지역에서 온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경우 절반 이상이 라틴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어가 그들 사이의 주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에 동화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로마 시민이 로마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가이우스에게 보낸 그의 대사관에서 이 사실을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들 시민 중 다수는 폼페이에 의해 노예가 된 사람들의 후손이었을 것입니다. 폼페이는 금세기 후반 베수비오 산의 폭발로 헤르쿨라네움과 함께 묻힌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원전 1세기에 로마 장군이었던 폼페이를 의미합니다. 폼페이는 많은 유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로마로 데려왔습니다.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가진 돈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의 자유를 샀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로마 시민의 해방된 종이였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당신도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오래 전에 바울 자신의 조상에 대한 배경일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로마의 외국인 혐오증에 주목하십시오. 로마인들은 안식일, 할례, 식품을 혐오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로마인들은 유대인의 관습을 정말 좋아했고 그것을 채택하고 있었지만, 이는 다른 로마인들 사이에서, 특히 엘리트들 사이에서, 특히 자신의 아내 중 일부가 이 최고 신에 대한 유대인 관습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난 엘리트 남성들 사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안식일과 일부 음식 관행. 그들은 할례를 절단의 한 형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다양한 유대 문학 모음집, 즉 고대 유대인에 관한 이방인 저술에 관한 Menachem Stern의 연구와 같은 문헌에서 이에 대해 읽습니다.

또한 티베리우스와 클라우디우스 치하에서 유대인 공동체도 추방되었습니다. 적어도 클라우디우스 치하에서 추방은 전면적인 추방이 아니거나 완전히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 공동체는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로마 역사와 그곳의 교회. 클라우디우스는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과 아마도 많은 다른 사람들을 추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음 세션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디우스는 서기 49년, 아마도 서기 49년에 유대인 기독교 지도자들을 추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1년이라고 말하지만, 49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54년에 사망했을 때 다른 칙령이 그랬던 것처럼 이 칙령도 자동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5년 후에 예수를 믿는 일부 유대인 신자들은 로마로 돌아갈 수 있었고 다른 유대인 신자들은 로마로 올 수 있었습니다. 64년 네로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던 지 10년 후, 클라우디우스가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을 추방하고 아마도 주로 이방인 교회를 떠난 지 약 15년 후입니다.

64년에 네로는 로마에서 수백, 수천 명의 기독교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1세기 후반에 클레멘스 1장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교회가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편지를 썼을 당시 로마에는 번영하는 교회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비록 최근에는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방인 교회로 간주됩니다. 처음에는 유대적 기반이나 유대적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곳에서 유대인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유대교가 잘 알려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발견한 내용 중 일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방금 로마

교회 역사의 요약에서 언급한 모든 점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신은 로마서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로마서에 담긴 역사,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중심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세션 1, 소개입니다.